

2018년 新청렴아카데미 운영결과 보고

임직원의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*추진근거: 감사실-849호(2018.02.08.), 감사실-1247호(2018.02.27.)

1 운영개요

□ 기본방향

- 부정청탁금지법 의무화에 따른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(연 1회, 2시간 이상)
- 공직생애 주기 고려 및 실제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

□ 운영기간 및 이수인원 : 2018. 3월 ~ 11월 / 16회, 1,477명

□ 소요예산 : 3,421천원

2 운영 결과

〈종합평가〉

권익위 전문강사의 실질적 실천 교육으로 반부패 제도의 이해 및 필요성 인식을 통해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공단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

- 교육 횟수 및 이수 인원이 전년 보다 6회(160%), 913명(143%) 증가
- (2017) 10회 608명 (2018) 16회 1,477명
- 본부 집합교육 외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현업직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참여도 증진
- 6회 240명 : 추모시설처, 혼잡통행료관리소, 도로환경처, 서울월드컵경기장 등
- 교육을 연중 분산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 편의성 제고
- 권익위 전문강사 및 공단 내 청렴기본과정 이수 강사를 활용하여 전문성 확보 및 예산 절감 도모
- 교육내용별 맞춤형 강의 실시(청탁금지법, 임직원행동강령, 공익신고 등)로

이해도 증진 및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

- 롤 플레이링 기법,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흥미 유도

▶ 운영방법 개선 : 업체위탁(8.9백만원 소요) → 직영운영(3.4백만원 소요)으로
5.5백만원 예산절감

○ 종합만족도 : 4.49점(5.00만점) — 전년 대비 0.11점 하락

- 주요 하락 요인 : 강의시간 초과 운영에 대한 불만, 휴게시간 요구,
교육 장소 협소 등

→ 하반기 강의 운영시 강의장소 변경하여 운영 (강의장소 : 청계천문화관)

→ 2019년도에는 만족도 상위 강사 위주 섭외 추진

<교육 운영 현황>

과정 구분	횟수	교육일자	인원	강사	주요내용 (청탁금지법 기본 외)
찾아가는 청렴아카데미	6회	3.30(금)	56명(월드컵경기장)	이○○	▪ 청탁금지법 바르게 알기
		4.12(목)	44명(승화원)	이○○	▪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내용
		6.14(목)	47명(도로환경)	이○○	▪ 공익신고
		7.13(금)	35명(추모공원)	김○○	▪ 공단사례를 통해본
		10. 5(금) (2회운영)	58명(혼잡통행료)	김○○	청탁금지법, 임직원행동강령
직위자 청렴아카데미	1회	8.30(목)	93명	이○○	▪ 우리의 반부패 청렴 실태 ▪ 반부패·청렴 정책의 흐름 ▪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위반사례 ▪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
실무자용 청렴아카데미	3회	10.12(금)	72명	이○○	▪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하기
		10.23(화)	124명	이○○	▪ 청탁금지법과 관련 공단사례
		10.25(목)	226명	김○○	▪ 사례를 통해본 주요 부패 사건
부패 취약분야 청렴아카데미	3회	4.20(목)	50명	최○○	▪ 부패 발생 요인 및 취약분야
		6.26(화)	51명	이○○	▪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사항
		11.30(금)	28명	김○○	▪ 사례를 통해본 주요 부패 사건
전직원 대상 청렴아카데미	2회	6. 5(화)	416명	이○○	▪ 공단의 청렴 현주소 파악 및
		9.13(목)	149명	이○○	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
체험형 청렴아카데미	1회	9.11(화)	28명	김○○	▪ 신입 공직자 기본자세 ▪ 선인의 청렴사상 습득 ▪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유적지 답사

3 2019년도 청렴 아카데미 운영시 개선 착안사항

-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및 내부 청렴기본과정 이수 강사의 활용은 유지하되
- 운영 방법 상의 다양화 추구로 청렴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유도
 - 집합 교육 외, 청렴 콘서트 및 청렴 골든벨, 퀴즈쇼 등 운영
 - 체험형 청렴교육 횟수를 늘려 청렴에 대한 인식을 인식 전환 기회 확대
- 청렴교육 시 권익위 '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' 등의 중요성 공유
-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계층별 교육 및 본사직원 참여 교육 확대